

경제(핵심8) 지속가능한 도농 상생형 일자리 창출

1. 현황 및 필요성

- 농촌 고령화, 소멸론 등 농업·농촌의 위기 속 일자리 문제 대두

2. 추진방향

- 농촌 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하여 농촌인력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
 -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(평동농협) -> 2개소 확대 운영
- 미래농업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
 -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
 - ※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, 2년차 월 90만원, 3년차 월 80만원
 - 농지구입, 시설 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 최대 3억 지원
 - ※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, 금리 고정 2%
 -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, 농지은행 농지 임대, 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
 - 청년농업인 유치현황 : 31명(`18 ~ `22년)

구분	11종	벼	토마토	잔디	딸기	가지	수박	콩나물	양봉	산란계	포도	플럼 코트
인원	31명	10	9	1	3	1	1	1	2	1	1	1

3. 기대효과

-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
-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업인구 고령화 해소

4. 소요예산

- 「'23년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」 공모 신청 : 2개소 160백만원
-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: 126백만원

5. 추진부서

- 생명농업과